

“실제론 혼자 끄끄 앓는 스타일... 끈대 아닙니다”

MBC 수목드라마 '끈대인턴' 서 가열찬 역 박해진 상사와 부하의 신세 역전 그린 오피스극 '미스터트롯' 출연진 OST 참여...영탁 출연도 화제

“저는 그렇게 ‘끈대’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는 그때그때 얘기 못 하고 끄끄 앓는 스타일이죠.”(박해진)

“박해진 씨와 이번엔 처음 연기하는데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해진 씨의 얼굴이 완벽하다는 것, 그리고 끈대질을 아주 잘한다는 것.(웃음)”(김응수)

MBC TV가 20일 새로 선보인 수목드라마(오후 8시55분) ‘끈대인턴’에서 양속으로 만난 배우 박해진(37)과 김응수(59)는 최근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티격태격 호흡을 선보이며 팀워크를 자랑했다.

‘끈대인턴’은 한 식품회사 인턴으로 일할 당시 끈대 부장 이만식(김응수 분) 아래서 고생하다 퇴사한 가열찬(박해진)이 5년 후 새로운 회사에서 성공신화가 된 후 시니어 인턴으로 입사한 만식과 다시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요새 유행하는 트로트곡 가사처럼 ‘내가 왜 거기서 나와’라며 놀라는 것도 잠시, 만식은 인턴으로 살아남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반대로 열찬은 자신의 부하로 들어온 만식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피의 복수를 다짐하며 제 안의 끈대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시놉시스만 들어도 코믹함이 예상되는 진행자의 말에 박해진은 “내가 특별히 코믹한 캐릭터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웃으며 “활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시청자들 보시기에도 재밌었다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김응수 선배님과 꼭 연기해 보고 싶었는데 현장에서 이 정도 호흡이면 부부연기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다”며 “또 유쾌한 작품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드라마가 요즘 시국에도 잘 맞는 것 같다”고 덧붙혔다.

영화 ‘타짜’ 속 광철용 캐릭터가 다시 부상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김응수는 “광철용으로 부활한 이 김응수가 ‘끈대인턴’ 이만식을 만나면 또 비슷한 부분을 찾아내지 않을까 하며 재밌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끈대를 어떻게 정의하나고 묻자 “나의 지위를 이용해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화두”라고 답했다.

이 드라마에는 박해진과 김응수 외에 박기웅, 박아인 등도 출연한다.

박기웅은 “대본 재밌고 캐릭터 재밌고 현장 분위가 즐거우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아인도 “내용이 정말 재밌고 유쾌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통쾌하게 웃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끈대인턴’은 2018년 ‘MBC 드라마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신소라 작가의 작품이다. 연출은 ‘역도요정 김복주’, ‘백일의 낭군님’, ‘킬잇’ 등을 만든 남성우 PD가 맡았다. 국내 OTT(실시간 동영상서비스) 웨이브가 제작 투자했다.

남 PD는 “웃으면서 보다가 드라마가 끝나고 광고 나올 때쯤 소싯적 생각, 직장 동료 생각을 곱씹어서 해볼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끈대인턴’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진이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에 참여하고, 그중 한 명인 영탁의 카메오 출연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2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5분 먼저 시작한 ‘끈대인턴’ 첫방송 시청률은 4.4%~6.5%(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 뒤이어 9시 35분부터 방송한 ‘쌍갑포차’ 1회는 3.610%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TV서 존재감 사라진 20~30대 청춘배우들 넷플릭스·웹드라마로...온라인서 활로 모색

제작비 증가·광고시장 축소 영향 드라마 베테랑 내세워 안전 택해

TV 드라마의 꽃이자 작품의 흥행을 견인했던 20대~30대 초반 배우들이 최근 좀처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제작비가 어려운 제작환경에 베테랑 배우들을 내세우는 안전 전략을 택하면서 이들은 넷플릭스와 웹드라마 등에서 새롭게 활로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21일 기준 방송 중인 드라마들을 봐도 SBS TV 금토극 ‘더 킹: 영원의 군주’와 KBS 2TV ‘본 어게인’ 정도를 빼면 청춘스타가 주축인 작품을 찾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더 킹’의 이민호(33)와 김고은(28)은 전작들만큼 연기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홍행 답보 카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본 어게인’ 장기용(27)과 진세연(26)도 작품 자체가 시청률이 2%대에 머무르며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종영한 정해인(32)-채수빈(25) 주연의 tvN ‘반의반’, 김명수(28)-신예은(22)의 KBS 2TV ‘어서와’ 등도 시청률이 0~1%대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최근 화제 속에 종영한 JTBC ‘부부의 세계’는 물론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인기 드라마 속에도 두각을 드러내는

청춘스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2018년 정해인을 비롯해 양세종(28), 우도환(27), 장기용이 ‘무키 4인방’으로 불리며 조연에서 주연 반열로 점프한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나마 ‘부부의 세계’에서 내연녀 여다경으로 열연한 한소희(26)가 유일하게 작품으로 수혜자가 돼 광고 시장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렇듯 TV 드라마 주축의 고행화 현상은 결국 제작비 증가와, 광고 시장 축소 속 회수의 어려움 때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박지중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제작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제작자들은 방송사든 안전히 가려는 측면이 있다. 연기력과 인지도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은 젊은 친구들을 주연급으로 내세우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TV 드라마에서 입지를 다지기 어려워진 젊은 배우들이 향하는 곳은 넷플릭스 등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웹드라마 등 온라인 채널이다.

특히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인간수업’ 속 박주현(26)과 김동희(21)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소재와 장르의 경계를 없앤 넷플릭스 작품에서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며 호평받는데 성공했다. /연합뉴스



‘본 어게인’ 장기용



‘더 킹’의 이민호와 김고은

‘깡 열풍’ 비, 방시혁 손잡고 K팝그룹 육성

엠넷 ‘아이랜드’서 참가자 지도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8·사진)와 블랙비 출신 지코가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손잡고 K팝 그룹 육성에 나선다.

CJ ENM은 비와 지코가 다음 달 26일부터 엠넷이 방송하는 K팝 아티스트 육성 프로그램 ‘아이랜드’(I-LAND)에서 참가자들을 지도하는 프로듀서진에 합류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랜드’는 CJ ENM과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설립한 합작법인 ‘빌리프랩’의 첫 프로젝트로, 차세대 K팝 아티스트



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비는 2017년 발매한 노래 ‘깡’이 최근 들어 ‘1일 1깡’(하루에 한 번씩 ‘깡’ 뮤직비디오를 봄)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유상철(왼쪽)과 안정환

암 투병 유상철 감독, ‘몽쳐야 찬다’서 안정환과 재회

JTBC 오는 31일 방송

JTBC는 오는 31일 방송할 ‘몽쳐야 찬다’에 대장암 투병 중인 유상철 인턴 유나이트드 명예감독이 출연한다고 21일 예고했다.

지난해 11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인턴 유나이트드FC의 K리그 1부 리그 잔류를 성공시키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유 감독은 이후 본격적인 항암 치료에 들어가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 방송 출연은 6개월 만의 공식 석상이다.

‘몽쳐야 찬다’ 제작진은 “건강한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꼭 다시 서고 싶다”는 유 감독의 바람을 이뤄주기 위해 유 감독의 항암 치료 일정과 컨디션을 체크하며 오

랜 시간 스케줄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독을 응원하기 위해 그와 2002년 월드컵, 최고의 순간을 함께했던 최진철, 이은재, 송종국, 이천수 등도 나서 감격의 재회를 했다.

‘어쩌다 FC’의 감독 안정환과의 재회도 몽클함을 안길 예정이다. 31일 밤 9시 방송.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유)신 화 로 프</p> <p>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p>	<p>고 전 방</p>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장 어 수 산</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향생계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p>	<p>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메뉴 포장및 배달가능 직접전화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미 가 한 우 명 가</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p>	<p>퀸 타 로 카 드</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신 신 예 술 의 집</p> <p>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남 문 냉 동</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사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p>	<p>우 리 뷔 페</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충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정성과세로운맛으로 보듬어줍니다. (회사·단체 강부환형) ☎ 062)381-0066, 010-3085-0140</p>	<p>무 크 광 주 세 정 점</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강아울렛2층 258호 회사한복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p>	<p>한 성 꽃 화 원</p> <p>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p>
<p>김 동 일 쉼 프</p> <p>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창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인팅형 ☎ 062)228-1975, 010-9622-8938</p>	<p>유 가 네 한 우 공 망 광 주 대 인 점</p> <p>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고 진한 곰창의맛! 한우맑은곰창,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p>	<p>개 성 전 통 한 방 삼 계 탕</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p>천 상 일 월 태 주 명</p>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p>
<p>자 연 모 가 발 안 병 원 헤 어 샵</p> <p>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개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요 리프·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p>	<p>초 대 화 랑</p>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대 성 각 중 화 반 점</p> <p>동구 무등로306-6(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p>	<p>박 당 화 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p>